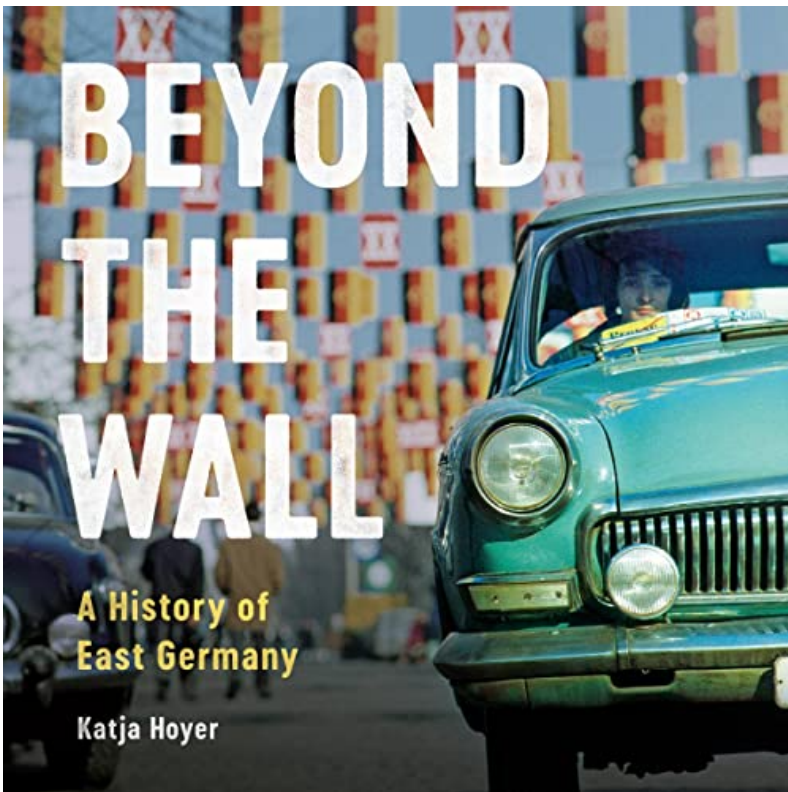


## [번역] 동독인들의 동독 탈출?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



결과적으로 많은 동독인들이 서독을 방문하고 싶어 했을 뿐만 아니라 서독에서 살고 싶어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서독은 높은 임금과 동독에서 구할 수 없던 소비재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여러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1988년 동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42%가 동독 내부의 소비재 부족 문제 때문에 서독으로 이주하고 싶어 했고, 27%가 보다 더 큰 여행의 자유를 얻기 위해 동독을 떠나고 싶다고 진술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Falck, 1998).

이주 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통계는 아이젠펠드(Eisenfeld)에 의해 제공됐다(1996). 수천 명의 동독인들이 매년 정부에다 이민 허가를 신청했고, 1980년대 말에는 그 수가 수만 명으로 상승했다. 오직 신청의 일부만이 허용됐으며, 이민 비자를 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 또한 적잖은 기다림과 시간(대략 수개월에서 수년까지)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서, 1980년에서 1989년 6월 사이 284,700 명이 새로운 이민신청이 접수됐지만, 87,100명이 이 기간 동안 “자의적으로” 신청이 철회되고 있는 동안, 오직 158,800명만이 출국이 허용됐다. 1989년 6월 30일 기준으로 총 125,400명의 해결되지 않은 이민 허가 신청이 남아 있었다(사실 이것도 198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13,500명이었던 것이 상승한 것이다).

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통상적으로 자국의 출국 요청을 취소하라는 정부로부터의 적잖은 압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보다 더 부드럽고 유한 설득 수단이 종종 사용되고 있는 동안, 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종종 괴롭힘 및 방해로 설명될 수 있는 철저한 스타시(동독 비밀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매년 수백 명의 신청자들이 그러한 스타시의 조사 결과로 인해 체포되었고 다양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수천 명의 신청자들의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게다가 신청자들은 동독에 다시 재입국할 수 없다는 위협과 더불어 그로 인해 동독에 있는 친구와 가족을 다시 만나기 힘들다는 어려움과 사실에 대해 일반적으로 정부로부터 통보 받았다. 적잖은 동독인들이 이러한 정부의 압력에 부정적으로 대응했고(수만 명의 매년 자신들이 겪는 위협에 대해 동독 정부에다 불만을 토로했다.), 수천 명은 자신이 종사하고 있던 직장을 관두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정부가 그들의 지속적인 체류를 쓸모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비생산적인 것으로 보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에서 심지어 동독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실제로 떠나는 것이 허용된 사람들은 이후 외세의 대리인 심지어 반역자로 규정되어 공개적으로 비난받았고, 동독의 이민자들의 귀환을 장려하기 위해 약간의(다소 일관되지 않은) 노력을 했지만, 매년 그렇게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불과 수백 명에 불과했다.



이런 불확실하고 달갑지 않은 이민 절차 신청을 피하기 위해(또는 신청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로 몇 달 또는 몇 년이 경과했을 때를 우회하기 위해), 일부는 불법적으로 이민 가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과 두 독일 사이에 있는 장벽 때문에 오직 일부만이 매년 이민에 성공했을 뿐이다. 수백 건의 불법적인 계획과 “탈출” 시도가 매년 있었지만, 국경지역에 도달 하기도 전에 대부분은 스타시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확인된다.

거기다 병력으로 무장된 국경을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것 이외에도, 불법 이민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었다. 예를 들어 매년 서독을 방문했던 소수의 사람(1988년 기준으로 6,000명도 안됐다)들은 서독에 남기로 결정하고 동독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허가 없이 이민을 가는 것이 동독 법 위반이며 동독을 다시 방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더 많은 이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동독 당국은 매년 방문하기 전에 불법 이민자의 친구나 가족이 서독을 방문하는 것이 허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서독으로의 이민은 동독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을 다시는 보기 어렵게 만든 셈이다 (Hertle, 1996). 비록 서독으로 이주한 이들과 그들의 동독 가족 및 친척들이 휴가철에 헝가리와 같은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에서 만나는 일이 자주 발생했지만, 스타시는 자신들의 정보제공자를 종종 이용하여 그러한 집착을 방해 및 중단시키기도 했다(Eisenfeld, 1996). 이와 같은 스타시의 전술은 99% 이상의 동독 방문객들을 서독에 머무르는 것을 성공적으로 억제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됐다. 비록 서독에 남는 비율은 1987년에 상승 추세를 보이며 0.22%, 1988년 0.35%, 1989년 전반까지 0.61%(1989년 8월에 1%까지 상승)까지 올라갔고, 거주하게 된 이들 대다수는 의사와 같은 숙련되고 필수적인 노동자들이었지만 말이다(Krenz, 1990).

불법 이민의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동베를린에 있는 서독 영사관 사무실로 피신하는 방법이 있었다. 서독은 개별적으로 동독의 법적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곳에 있는 미대사관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에 실질적인 대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Keithly, 1992). 일단 내부에 들어가면 외교 면제법이 동독 경찰의 입국을 막았고, 난민들이 합법적으로 이민갈 수 있도록 서류를 일반적으로 협상했다(불리한 여론 및 기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했다). 여기서 문제는 동독 경찰이 서독 영사관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었고(동독에 여러 외국 대사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반적으로는 내부 출입 허용 없이는 이들 중 어느 누구도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동독인들 대규모로 집단에 의한 예상치 못한 영사관 쪽으로의 돌진만이 이주에 성공할 수 있었다.

서독으로의 또 다른 불법이민도 존재했다. 특히나 동독인들은 정부의 허가 없이 서독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소련으로 연결되는 동유럽 지역의 나라들과 그리고 다른 공산권 국가들을 사실상 아무런 제

한 없이(그리고 공평하고 값싸게) 여행할 수 있었다.(aus erster Hand, 1987) 이와 같은 동독의 사회주의 동맹국들 또한 서방 국가들에게 국경을 개방하지 않는 동안(동독 정부가 내준 비자 없이는 동독인들은 서방 국가들을 방문할 수 없었다), 그 나라에 있는 서독 대사관을 통해서 피난처를 찾는 것이 가능했다. 동독은 매년 이러한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이주한 수십 명의 동독인들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서독 대사관의 출입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Eisenfeld, 1995), 이러한 대사관에서의 경찰 동체는 동독 내부만큼 강력하지는 않았다.

출처: Austin Murphy, 『The Triumph of Evil - The Reality of the USA's Cold War Victory』, European Press Academic Publishing, 2000, p.129~132.